

37

부자와 나사로(천국과 지옥)

누가복음 16장 19~31절,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부자가 사는 집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썩어 터진 상처 때문에 일도 하지 못하고, 부자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면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아서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나사로는 죽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나사로를 받아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부자는 매일 잔치를 즐기며 살았습니다. 옷도 화려하게 입고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부자가 죽었는데,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부자는 불꽃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부자가 눈을 들어보니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 손끝에 물을 한 방울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얘야,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제 너는 그곳에서 고난을 받고, 나사로는 위로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다.”

부자는 혀가 타들어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지만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천국을 만드셨습니다. 천국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수많은 보석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진 곳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곳입니다. 천국은 죽음이 없기 때문에 다시는 헤어지는 일도 없고 슬퍼서 우는 일도 없습니다. 오직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만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몸이 다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지만 천국은 아픔이 없는 곳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요한계시록 21:4)



37

천국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천국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큰 기쁨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 보도다.”



오늘의 공부

지옥은 정말 있을까요?

지구 속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온도가 7,000도 이상이라고 합니다.

지구 속에 이렇게 뜨거운 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옥의 뜨거운 불을 만들지 못하실까요?



1. 여러분은 지옥이 정말 있다고 믿고 있나요? ()
2.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

.....

천국에 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아요.

1.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

2. 우리는 왜 천국에 꼭 가야 하나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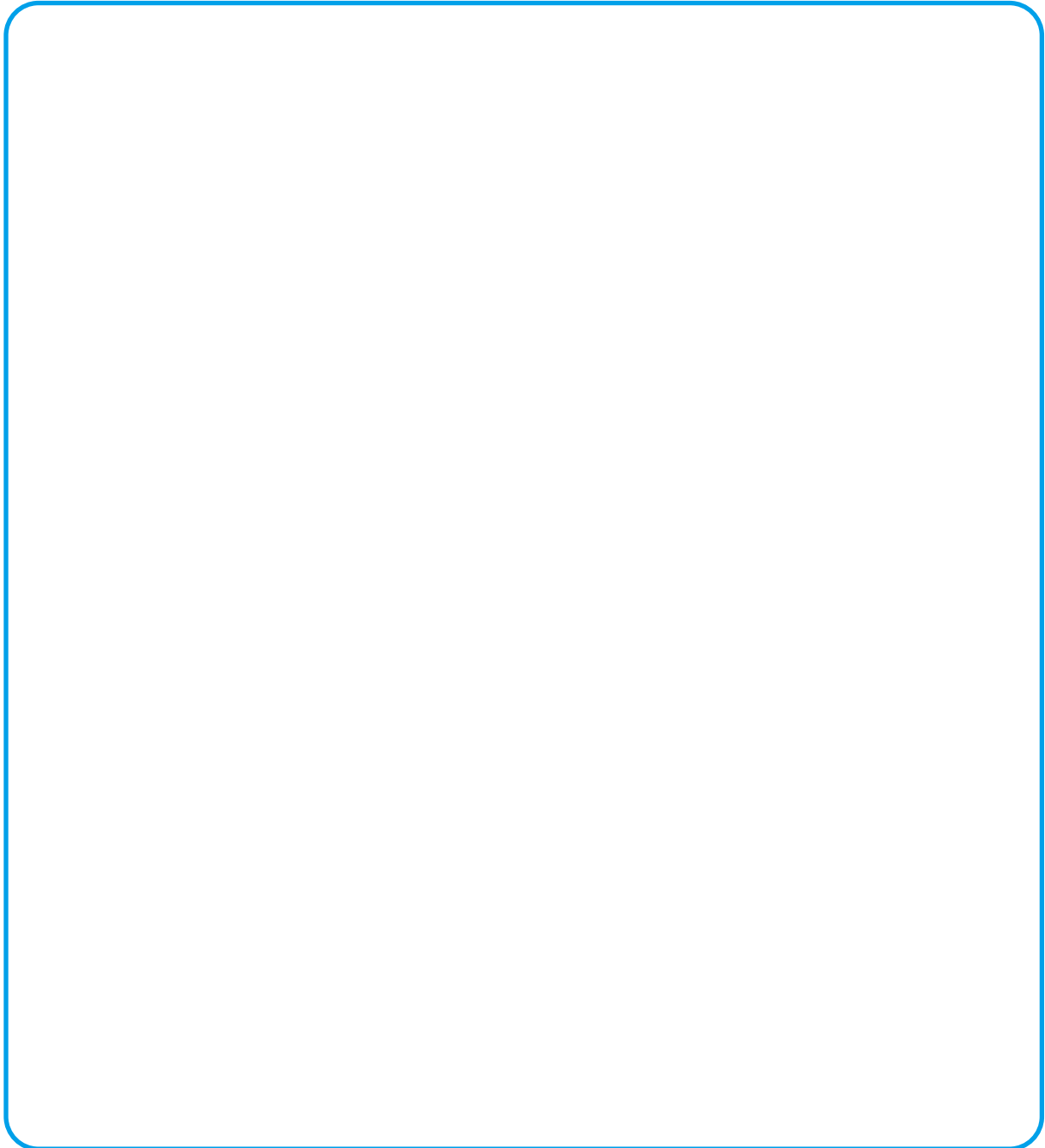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4)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9)

오늘의 말씨름을 배우고

나는 천국에 가나요? 지옥에 가나요?

천국에 있는 자신의 모습이나 지옥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예 화

* 천국에서...

세상에서 돈을 마음대로 쓰고 하나님 일에 큰 관심이 없었던 한 자매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자매가 천국에 도착하자 천사가 그 자매가 살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집들을 지나며 그 자매는 그 중 하나가 자기가 가질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큰 길을 지나자 집들이 훨씬 작은 변두리가 나왔습니다. 바로 거기에 오두막보다 나은 것이 없는 한 집이 있었습니다.

천사 : 저것이 네 집이다.

안내하는 천사가 이렇게 말하자 자매는 항의했습니다.

자매 : 뭐라고요? 저 집이요? 거기서는 살 수 없어요.

천사 : 안됐구나. 하지만 네가 올려 보낸 돈과 재료로는 저 집밖에 지을 수가 없었던단다.

꿈에서 깨어난 자매는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크게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
난

선생님
난